한 국 말 을 배 우 고 있 어 요

이 시 카 와 아 키 요

한 국 은 몇 년 전 까 지 는 “ 김 치 의 나 라

”라 고 하 는 이 미 지 만 있 었 다 .

텔 레 비 전 드 라 마 “ 겨 울 연 가 ” 의 영 향

으 로 한 류 붐 이 왔 을 때 도 나 는 한 국 에

흥 미 가 없 었 다 .

그 러 나 , 당 시 본 NHK 의 한 글 강 좌 가

아 주 재 미 있 어 서 교 재 를 사 서 문 자 를

배 웠 다 .

8 월 에 처 음 으 로 부 산 에 놀 러 갔 었 다 .

KTX 를 타 고 , 부 산 에 서 서 울 로 갔 다 .

어 디 를 가 도 “ 일 본 인 입 니 까 ? ” 라 고

말 을 건 네 주 면 서 , 친 절 하 게 해 주 셨 다 .

나 는 매 우 기 뻤 다 .

본 격 적 으 로 공 부 를 시 작 한 지 아 직 1

년 이 지 만 , 앞 으 로 도 마 이 페 이 스 로 노 력

하 고 싶 다 .